

특혜성 조례에 불법 증축...광주 클럽 붕괴 사고 '예고된 인재'

새벽 2시 붕괴 2명 사망...수영대회 외국 선수 등 25명 부상 지난해에도 불법 증축한 구조물 무너져 업주 200만원 벌금 춤 출수 없는 음식점 허가...서구의회 조례로 댄스영업 가능

광주시 상무지구에서 불법 증축한 클럽 내부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지고 미국 수구 대표팀 등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8명을 포함한 내외국인 25명이 다쳤다.

지난해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과 광주 서구청을 올해 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지만, 기본적인 불법 증축 여부는 단속조차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가 난 클럽은 지난해 불법증축 시설물 중 일부가 떨어져 손님이 다치는 바람에 경찰에 인건까지 댔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과 자치단체, 유흥업소간 유착 의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야시간 갑자기 '쿵'=27일 새벽 2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코요테어글리' 클럽 북측(선반형 구조, 높이 2.5m) 구조물 바닥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며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구조물 아래에 있던 손님들이 깔리면서 20,30대 손님 2명이 사망했다.

또 클럽 내에 있던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 8명도 확인됐다. 당시 이 클럽에는 이번 수영대회 우승 축하 파티를 하던 미국 여자수구대표팀 등

각국 대표선수 40여 명을 포함한 내외국인 37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과 경찰은 현재까지 이 클럽이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 증축을 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클럽은 2017년 12월께 불법 증축을 통해 허가받은 면적보다 1.7배(77㎡) 더 넓은 185㎡의 북측 구조물을 만들어 영업했다. 1층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북측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은 철재 파이프 3개가 전부였다. 이날 사고가 일어난 지점도 불법 증축 공간의 일부였다.

경찰은 2층 목재바닥을 지지하는 철재 기둥이 사람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구부러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너진 규모는 21㎡로, 손님 40여 명이 몰려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클럽 공동대표 김모(51) 씨 등 2명과 영업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특혜성 조례로 촉발된 예고된 인재=이 클럽은 원래 광주 서구로부터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는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서구가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같은 영업행위가 가능해졌다.

클럽대표 김씨는 2016년 1월께 상무지구 7층 건물 중 2-3층(504.09㎡)를 임차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했다.

2-3층은 층간 구분 없이 개방된 형태인 하나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업주는 양쪽 벽면에 선반 형태의 북측 구조물 108㎡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당시 업주는 손님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실 수 있는 '감성주점' 형태의 클럽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휴게음식점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해당 업주 개정법에 따른 위법으로 2016년 3월과 6월 각 1개월씩 영업정지와 과징금 6360만원을 처분받았다.

광주시 서구의회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영업행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같은 해 7월 통과시켰다. 당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서구청 한 간부는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조례에 따르면 150㎡ 이하 일반음식점이 대상이지만 조례 시행 전 영업 신고한 업소는 허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면서 이 클럽은 '춤 허용 지정업소'로 허가받았다. 결국 이 조례의 부칙조항 혜택은 이 클럽과 금호동의 한 주점 등 2곳이 받았다.

이후 이 클럽은 2017년 12월께 불법 증축으로 영업 공간을 추가로 늘렸고, 지난해 6월 10일엔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여자 손님이 다쳤다.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원을 내고 파손된 부분을 보수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불법 증축 여부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새벽 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북측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무너진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 지난해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은 2-5월, 서구청은 3월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였지만 점검은 형식적이었던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여기에 조례에는 춤 허용업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서구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뒤통수 조처에 클럽의 위험한 영업은 여전히 클럽 붕괴사고에 따라 광주시와 서구, 경찰을 비롯한 정부까지 나서 다중이용건

축물 불법 증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에서 춤이 허용된 업소(유흥주점)는 료살롱 587개, 디스코클럽 4개, 노래클럽 4개, 간이주점 17개, 카바레 19개, 단란주점 469개 등 1100개다. 이 중 181개가 상무지구에 몰려있다. 유흥주점들은 대부분 어둡고 건물 내부 구조도 복잡해 화재나 붕괴 등이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강현구 광주건축사협회장은 "업주가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구조물은 구조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한계하중을 파악할 수 없는 등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불법 증축은 물론 화재경보 시설, 비상구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불법 건축물 집중단속 엄정 처벌하라"

이낙연 총리 "피해자 지원 최선" 했다. 광주시는 서구 상무지구 클럽 내부 북측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광주 시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용섭 시장장은 사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광주에서 불법 증축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불법 건축물을 집중 단속,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

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광주시는 정중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 자치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건축물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7일 상무지구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부상자 현황 및 치료 현황 파악, 사망자 장례지원, 수영대회 선수 부

상 대책 및 지원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앞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과 세계인들께 송구스럽다"고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복숨을 잃으신 내국인 두 분의 명복을 빈다. 부상하신 내외국인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자치단체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동구 KTX 연계상품 '달빛결음' 내달 5일까지 판매

광주시 동구가 광주문화재단이 '달빛결음' 코레일 연계상품인 '달빛결음'을 오는 8월 5일까지 판매한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터즈대회 기간 중인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옛 전남도청과 광주읍성 옛터, 서석초등학교 일원에서 '달빛결음'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구성되며 지난해에는 7만명이 방문한 인기 프로그램이다.

이 상품은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KTX 요금 10~50%할인 혜택과 동구 게스트하우스 '부엉이살림' '오아시스' '여로' '신시와' '순길' 중 1곳을 선택하면 숙박료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용희 기자 kimyh@

전남경찰청, 상반기 체감안전도 전국 17개 지방청 중 1위

전남지역이 전국 17개 광역사도 중 체감 안전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진행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에서 전남지방경찰청이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월까지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전국 255개 경찰서(전남 21개) 관할 지역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범죄·교통 사고 안전도와 범죄·교통 안전도, 전반적 안전도 등 4개 분야를 설문하는 조사다.

최근 5년간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1-3위를 유지해 온 전남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조사

에서는 전국 최고 점수(77.8점)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전국 평균은 74.5점이다.

전남경찰청은 전반적 안전도 78.8점, 범죄 안전도 83.9점, 범죄·교통 안전도 75.1점(이상 1위), 교통사고 안전도 72.5점(2위) 등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해경 상반기 해양사고 57건...지난해보다 12% 감소

목포해경은 "올 상반기 6대 해양사고(총 돌·좌초·침수·침몰·전복·화재)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발생한 해양사고 선박은 총 57건

(좌초 21건, 총돌 17건, 침수 9건, 화재 8건, 전복 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 대비 8건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보다 총돌 7척, 침몰 3척, 침수 15척이 감소했지만, 기상불량과

좋은운항으로 좌초된 선박은 16척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해양사고 감소 원인을 시기별로 사고다발해역을 지정해 집중관리한 결과로 보았으며, 기상불량 속 운항과 좋은 운 조항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